

한국, 칠레·슬로바키아 만나면 '최상'

국제축구연맹(FIFA)이 2010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조 추첨(한국시간 5일 오전 2시)에 앞서 본선에 진출한 32개국의 그룹(포트)을 배정하면서 월드컵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고 있다.

조 추첨을 앞두고 축구전문가들이 분석한 최상-최악의 조를 알아본다.

◇신문선 명지대 교수=1그룹에서 가장 두려운 팀을 브라질과 네덜란드, 스페인이라고 손꼽은 신 교수는 "3그룹에서도 될 수 있으면 나이지리아, 카메룬, 가나를 피하는 게 좋다. 4그룹에서는 역시 프랑스와 포르투갈이 가장 위험적"이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이어 "1그룹에서는 전력상 가장 약체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만나는 게 그나마 좋다. 이르면 3그룹에서 까다로운 아프리카 팀을 피할 수 있다"라며 "4그룹에서

2010 남아공월드컵 내일 새벽 2시 조 추첨 스페인-코트디부아르-佛 같은조 맨 '최악'

는 예전의 명성을 못 찾는 덴마크를 대적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덧붙였다.

◇김대길 KBS N 해설위원=예선결과보다 대진권이 월드컵 성적에 더 큰 역할을 차지한다고 말한 김대길 의원은 "1그룹에서 브라질과 스페인을 피해야 한다. 톱 시드를 받지 못한 4그룹의 프랑스와 포르투갈도 위협적인 존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개최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홈 이점이 있고 고지대에 적응돼 있다

는 강점이 있지만 그나마 1그룹 국가들 가운데 가장 전력이 떨어져 그나마 수월한 상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문성 SBS 해설위원=1그룹에서 가장 피해야 할 팀으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먼저 꼽은 박 위원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칠레, 슬로바키아와 같은 조에 묶이는 게 최상의 편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칠레는 남미예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세대교체가 늦은 데다 오랜만에 월드컵에 진출했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며 "슬로바키아 역시 체력 조건이 좋은 강점이 있지만 예선을 치르면서 상대적으로 수비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이어 "1그룹에서 브라질을 피하더라도 스페인과 네덜란드를 만나면 쉽지 않다. 거기에 4그룹에서 프랑스나 포르투갈까지 걸친다면 최악의 편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서형욱 MBC 해설위원=서 위원은 개최국 프리미엄을 가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은 조에 들어가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의 말대로 지금까지 18차례 치러진 월드컵에서 개최국이 조별리그 통과에 실패한 사례가 전혀 없어서다.

서 위원은 "서로 물고 물리는 만만한 팀이 모이는 것보다 아예 강팀이 하나 들어오는



2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의 국제컨퍼런스센터 건물 앞으로 커다란 축구공 모양의 풍선들이 진열돼 있는 가운데 태극기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온다. /연합뉴스

게 유리할 수 있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우루과이-프랑스(포르투갈)이나 스페인-코트디부아르-프랑스(포르투갈)와 같은 조로 묶이면 최악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우승 후보인 브라질을 만나고 3그룹의 알제리와 4그룹의 슬로베니아 또는 슬로바키아와 한 조에 속하면 그나마 디펜스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9 ISU 그랑프리 파이널'에 출전한 피겨퀸 김연아가 여자싱글 쇼트프로그램을 하루 앞둔 3일 일본 도쿄 요요기 제1체육관에서 공식 연습을 하며 일본 안도 미키 옆을 지내고 있다. /연합뉴스

몸 툰 연아 "완벽연기 자신있어요"

컨디션 굿... 오늘 그랑프리파이널 출전

김연아가 2009-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그랑프리 파이널 대회(3-6일, 일본 도쿄) 경기를 하루 앞두고 마지막까지 '완벽한 연기'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

김연아는 3일 오후 일본 도쿄 요요기 제1체육관에서 진행된 여자 싱글 공식 훈련 이틀째를 맞아 조지 거쉬 작곡의 '피아노 협주곡 바장조' 선율에 맞춰 프리스케이팅을 점검했다.

훈련 시작과 함께 가벼운 스케이팅으로 몸을 툰 김연아는 곧이어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와 트리플 플립 등을 깨끗하게 뛰어 박수를 받았다.

브라이언 오서 코치와 이야기를 나눈 뒤 스케이트 끈을 고쳐 맨 김연아는 안도 미키에 이어 자신의 차례가 되자 음악에 맞춰 가볍게 어깨를 으쓱하며 연기를 시작했다.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에 이어 트리플 플립, 더블 악셀-더블 토루프-더블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까지 완벽하게 뛰어오른 김연아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스파이럴 시퀀스 연기까지 안정적인으로

마쳤다.

다음 과제인 더블 악셀-더블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까지 잘 소화해낸 김연아는 이어 트리플 살코와 트리플 러츠에서 연달아 불안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남은 스텝 시퀀스와 더블 악셀, 스핀 등을 무난하게 마쳤다.

연기를 마친 뒤 잠시 오서 코치와 대화를 나눈 김연아는 네 차례 연속으로 트리플 러츠 점프를 시도하는 등 프리스케이팅에서 실수가 있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프를 한 차례 뛴 때마다 오서 코치와 눈빛과 손짓을 교환하며 기술을 점검한 김연아는 이어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와 트리플 플립, 트리플 살코, 더블 악셀-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 더블 악셀-더블 토루프-더블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 등을 연달아 시도하며 완벽한 점프를 만들어내기 위해 애썼다.

김연아는 이어 연습 시간 종료 7분 전을 알리는 방송이 나오자 마지막으로 스핀과

스파이럴, 스텝 등까지 점검한 뒤 박수를 받으며 링크를 떠났다.

김연아는 연습이 끝난 뒤 "컨디션이 좋았다. 프로그램은 초반에 한 턱에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해서 점프도 많이 뛰어보고 여러 가지 점검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중간에 살코와 러츠 점프가 불안했던 것에 대해서는 "첫 살코 때는 뒤에 선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약간 주춤하기도 했고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러츠도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연습에서는 흔한 일이라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오서 코치 역시 "살코와 러츠는 잠시 리듬이 맞지 않았던 것이다. 나중에 모두 성공하지 않았느냐"고 설명한 뒤 "점프 컨디션도 매우 좋고 빙질도 김연아에게 잘 맞는 것 같다. 김연아는 몸 상태가 매우 좋고 훈련도 잘돼 있는 상태"라고 칭찬했다.

김연아는 4일 오전 35분 동안 한 차례 더 연기를 점검하고 저녁 7시40분부터 시작되는 쇼트프로그램 경기에 나선다. /연합뉴스

한국, 패기·열정으로 日 꺾다

오늘 한·일여자골프대항전

교라쿠컵 제10회 한일여자프로골프 대항전 개막을 하루 앞두고 두 나라 주장들이 승리를 장담했다.

3일 일본 오키나와의 류큐 골프장(파73·6천550야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나온 이지희(30·진로재팬)와 사이토 유코(42)는 서로 "상대도 훌륭한 선수들이 많지만 반드시 승리로 대회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희는 "이번 대회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에는 워낙 훌륭한 선수들이 많다. 어디든 지적도 있지만 그만큼 패기나 열정이 앞선다"면서 "경기 방식도 스트로크 플레이라 생소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맞선 사이토는 "1번부터 마지막 선수까지 기량이 모두 든든하다. 한국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맞붙을 냈다. 한국의 맏언니인 이지희는 "나라를 대표해서 나온 대회라 이겨야 한다는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나 하나가 이기고 지는 것에 따라 경기 흐름이 확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 나가는 대회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1라운드 선수 구성에 대해서는 "아침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선수가 있는 반면 오후가 돼서 나가는 것을 선호하



4일부터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교라쿠컵 제10회 한일여자골프대항전 두 나라 주장인 이지희(왼쪽)와 사이토 유코가 3일 기자회견을 마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 의견을 존중했다"면서 "유선영이 첫날 빠진 것은 제비뽑기의 결과"라고 밝히기도 했다.

두 주장은 각자 '키 플레이어'로 한국은 신지애(21·미래에셋)와 서희경(23·하이트), 전미정(27·진로재팬)을 꼽았고 일본은 미야자토 아이(24)와 요코미네 사쿠리(24)를 들

었다. 이지희는 "우리 선수들이 기량이 훌륭한 데다 컨디션들도 모두 좋다. 자신의 플레이에만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고 장담했고 사이토 역시 "각 오를 말하려면 '이긴다'는 말밖에 할 것이 없다. 특히 톱타이기 때문에 절대로 질 수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